

# 대학자체 해외봉사 지원사업 선정

### 원광대, '아프리카 케냐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 제출... 올 여름 봉사활동 진행기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이하 대사회)에서 주관하는 '2018년 하계 대학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대사회는 대학 자체개발 해외봉사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 방학을 이용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 2~3주씩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총 711개 프로그램에 2만여 명 이상의 봉사단원을 파견했다.

원광대는 올해 도덕교육원 사회봉사과 주관으로 '아프리카 케냐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제출해 사업에 선정됐으며, 하계방학 기간에 케냐 루이루 지역에서 9월에 걸쳐 감염 예방 캠페인을 비롯해 의료봉사 및 보건위생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봉사단은 의과대학 최운정 부학장을 단장으로 총 21명이 구성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이하 대사회)에서 주관하는 '2018년 하계 대학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됐으며, 의료봉사를 기본으로 다양한 전공 연계 봉사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도중 총장은 "원광대 교훈인 지역 공헌에 봉사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겸수 및 도의실천을 통해 사회 약자

에게 헌신하고, 글로벌 시대에 저개발 국가에서 제생의세 정진에 실천하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질 것에 감사하다"며, "봉사단원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봉사단을 이끌 최운정 교수는 "케냐 국립병원과 공동협진을 통해 우리 대학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전수함으로써 현지인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계획"이라며, "봉사에 참여하는 예비의료인들이 봉사의 책임과 의무를 알고, 중요한 배움의 기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는 아프리카, 러시아, 캄보디아, 네팔, 중국, 인도, 라오스 등에서 양·한방 무료진료를 비롯한 교육, 문화, 노력봉사활동을 지속해서 이어오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이념 구현과 더불어 세계 곳곳의 학생들에게 한국문화체험을 통한 한류 문화를 전파하고, 이를 통해 봉사활동 참여 학생들이 인성을 겸비한 차세대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 익산시, 구제역·AI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고병원성 AI는 지난 3월 17일 충남 아산 산간계 농장을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이 없었고, 구제역 또한 3월 26일 경기 김포 폐지농장에서 A형 발생 후 더 이상 추가발생 하지 않아 AI는 4월 26일, 구제역은 4월 30일부터 전국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면서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익산시는 악성가축질병 차단을 위해 생식회를 1,785포 및 소독약을 5,863L, 5,613kg을 공급했고, 매주 수요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관내 축산농가의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축협공동방제단과 축산과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철새도래지(만경강,금강) 소독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우제류(소·돼지·염소) 22만두 1,056호에 구제역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한편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하향되었지만 A비리우스 잔존가능성이 높은 오리 및 특수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일제AI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집종시장 및 가금 판매소에 대해서는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휴업·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오리의 유통을 금지하기로 했다.

돼지에 대해서는 A형 구제역 백신 2차 접종과 백신 일제접종에 따른 항체양성을 모니터링검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31일까지 가축방역상황실 및 거점소독시설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 청년정책 실현 로드맵 제시

### 정헌을 익산시장 예비후보, 일자리 등 4개 정책으로 나뉨

정헌을 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사진)는 2일 청년실업률이 9.9%(18년 1월 발표)로 창업과 취업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익산형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청년이 공공의 의사에 참여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대내외의 청년관리장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헌을 예비후보는 "익산시 청년 일자리(청년취업)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한 청년지원조례를 토대로 구체적 정책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잘자리 사업은 청년취업자의 장기근속과 익산 인구의 증가를 가져올 실질적 지원제도를 구축하여 폭돈 마련의 미증들이 될 익산형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년통장" 지원제도와 함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교동비 문화생활 및 건강관리 등을 통한 원활한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위한 지원제도인 "청년복지카드" 제도를 만들어 지원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청년 건강검진"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년의 문제를 일자리(취업, 창업), 잘자리(청년문화), 잘자리(주거, 복지), 놀자리(청년문화) 4개의 정책으로 나누어 실현 가능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정책을 발표했다.

정헌을 예비후보는 "익산시 청년 일자리 사업은 청년 일자리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헌을 예비후보는 "익산시 각 위원회에 청년 참여비율을 10%이상을 확보하여 청년의 의견을 시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소통행정을 기본으로 하고 시민 참여예산 사업 중 청년예산 사업 실행제 도입을 추진하고 "청소년 인권노동센터"와 "청년로펌"을 설치 지원해 청년의 법률지원과 고충처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더불어 "익산 청년권리 선언"을 제정하여

정헌을 예비후보는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3배에 이르는 현 시점에서 청년은 국가의 미래자산이기에 그들의 문제를 청년과 소통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익산형 청년정책을 구축하겠다"고 말하며 시장이 되면 향후 제도적 뒷받침이 될 "청년전담 부서"와 청년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 군산대 해양과학대 수산경영자과정 입학식

군산대학교는 대학 해양과학대학 1층 대회의실에서 2018학년도 제2기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최고수산경영자과정은 군산대학교가 해양수산부와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 위탁 운영하는 교육과정이고, 올해에는 20여명의 전문수산경영인이 입학했다.

입학식 후에는 전라북도 해양수산과장의 "전라북도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소개에 이어 전담교수들의 새만금 사업과 전북 수산업에 대한 강의의 진행했다.

곽명선 총장은 축사를 통해 "요즘처럼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이를 흡수해 대처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시대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질을 스스로 길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김명준 해양과학대학장은 "최고수산경영자과정은 교육생들의 선진화된 경영철학을 확립하고 전문수산경영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소양을 축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대학교는 대학 해양과학대학 1층 대회의실에서 2018학년도 제2기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 군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이달부터 환자 사전등록서비스 실시

군산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노인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업무협약을 군산경찰서와 체결하고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등록 서비스를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경찰서와 파출소에서만 실시하던 지문 사전등록사업을 주민들이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함으로써 상담과 검진, 안내를 통해 지문사전등록과

지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치매인식표를 옷에 부착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해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는 치매인식표 보급 사업도 함께 추진하며 치매노인 및 그 가족이 실종으로 인한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 및 경찰서에서는 치매노인 배회감지기(GPS)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 승화원, 부부 추모관 운영

군산시 승화원은 추모관에 사업비 2억을 투입해 부부(2기)의 유골함을 함께 모실 수 있는 500여기의 부부단을 설치,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부부의 유골함이 떨어져 봉안돼 있어 고인들을 추모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을 파악해 투명 강화 유리형으로 부부를 같이 모실 수 있는 부부단을 설치해 유족들의 정신적 만족감을 증대시키고 고인들에 대한 효 실천을 도울 예정이다.

부부단(2구) 안치 비용은 15년 사용기간에 45만원이며 부부 두 분 다 돌아가셨을 경우에만 안치가 가능하다.

한편 승화원은 최근 추모3관 지하 1층에 누구나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뛰어난 새 사무실을 마련해, 추모객 및 장례식장 관계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평안한 장례문화 구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꿈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DreamHub GUNSAN | 군산시 GUNSAN CITY